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한 스타들...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비·김태희 부부, 임대료 50%만 청구
홍석천·서장훈도 '착한 임대료' 선행

건물을 소유한 스타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고통 받는 임대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월 전주한 옥마를 건물주 14명이 임대료를 낮추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김태희는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임차인들에게 3월 임대료를 절반 낮추겠다고 전했다. 또 남편 비 역시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 임차인들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리라 판단돼 그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3월에 한해 임대료를 50%만 청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임차인 및 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지난해부터 '경리단길 살리기 운동'에 참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경리단길' 건물의 임대료를 낮추은 홍석천도 3일 같은 사실을 밝혔다. 경리단길은 비교적 낙후됐던

지역이 참신한 경영방식의 업체들이 자리 잡으면서 새롭게 활성화하지만 기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번두리로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 지역으로 꼽혀왔다. 홍석천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태원 건물주들도 임대료 낮추기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신을 지목한 데 이어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헤민 스님과 가수 박혜경을 다음 주자로 꼽았다.

프로농구 출신 서장훈도 최근 서울 서초



구와 동작구, 마포구에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낮췄다. 2개월 동안 임대료 10%를 인하해준다고 한 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11

2020년 3월 5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코로나19 악화가 바꾼 라이프 스타일

극장 대신 '방콕'...리모콘을 든 사람들

왓챠 등 OTT 이용시간 37%P 증가
'히트맨' 등 IPTV 공개...반사이익 TV 시청 늘었지만 화제성은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엔터테인먼트 문화도 바뀌고 있다. 극장 관객 발길이 뜸 풀린 반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및 TV 시청시간은 증가했다. 2주째 기자간담회나 제작발표회 등 연예계 대외 행사가 중단되면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이 도입됐지만 '랜선 만남'인 탓에 화제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화 관람 문화 변화... '집콕'

재택근무가 늘고 외출도 꺼리는 분위기에서 집에서 영화를 보는 흐름이 뚜렷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올레TV 등 IPTV 3사와 디지털케이블TV 데이터를 집계하는 온라인상영관박스오피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최근 4주간(1월27일~2월23일) 총 이용횟수가 326만3715건으로 나타났다. 앞선 4주간(2019년12월30일~1월26일)의 248만5134건보다 77만8581건 늘어난 수치다.

OTT 이용시간도 늘었다. 스포츠동아가 왓챠플레이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직전인 1월19일 이용시간을 '100'으로 환산해 2월19일



14.17%P, 3월1일 36.87%P 증가세를 기록했다. 왓챠플레이 허승 매니저는 4일 "신규 콘텐츠 등 변수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6년 만에 2월 극장 관객이 최저치(734만명)로 추락한 상황과도 크게 대비된다. 잇단 개봉 연기에 극장 신작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같은 시기 IPTV에서는 '히트맨', '남산의 부장들' 등 최신작이 공개돼 '반사이익'을 누렸다. 이틀에 넷플릭스는 이달 류승룡·주지훈의 '킹

덤2'를 포함한 TV시리즈와 영화 등 50여편의 신규 콘텐츠를 공개해 반응을 논린다.

●TV시청도 올랐지만 '체감 화제성' ↓

집에서는 TV 시청시간이 크게 늘었다. 한국아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이 2월24~27일 성인남녀 204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여파로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1%가 "TV보기"라고 답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TNMS의 자료도 이

를 증명한다. 감염증이 확산되기 시작한 2월9일 일요일 전국가구의 평균 TV 시청시간은 10시간35분으로, 전년 같은 날 대비 27분 늘었다. TNMS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TV 시청으로 주말을 보내는 이들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TV 프로그램 스트리밍 사이트의 흐름도 다르지 않다. 스트리밍 사이트 웨이브의 정다연 매니저는 4일 "확진자가 급증한 2월18일 이후 8일간 실시간 시청량이 2월10일~17일과 비교해 28%P 증가했다"며 "뉴스 속보 등을 보려는 이용자의 유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료가입자 시청량과 영화 콘텐츠 구매율도 각각 0.5%P, 7%P 올랐다.

일각에서는 2월 초부터 SBS '남만다터 김사부2', tvN '사랑의 불시착' 등 시청률 15%(닐슨코리아)를 돌파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방송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떤 프로그램도 화제가 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제작발표회와 기자간담회 등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되는 가운데 한 방송 관계자는 "수단을 총동원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효과는 예전만 못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오프라인 행사와 비교했을 때 체감 화제성이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해리 기자·유지혜 기자 gofi1024@donga.com

SM vs YG vs 빅히트 신인 아이돌그룹 격돌

자존심을 내건 '빅매치'다. 아이돌 명가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신인그룹을 내세운 대결을 펼친다.

포문은 YG엔터테인먼트의 12인조 트레저가 열었다. 당초 2018년 YG의 신인그룹 선발 프로그램 'YG보석함'을 통해 '트레저 13'으로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12명으로 팀을 재조정해 선보였다.

YG가 2015년 아이콘 이후 5년 만에 내놓은 신인이다. YG는 지난해 버닝썬 사태와 박병의 승리, 아이콘의 비아이 등이 같은 사건과 논란에 휘말리면서 자사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한 터라 트레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멤버 유닛과 솔로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분위기 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멤버들의 작사·작곡 참여 등을 배제하겠다는 사전 계획을 철회한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이 작업한 결과물이 높은 자체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동생그룹'으로 불리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데뷔시킨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올해 신인을 선보인다.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제작시스템을 보장받은 만큼 지난해 3월 CJ ENM과 설립한 합작법인 빌리프를 통해 다국적 신인그룹을 론칭한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국내외 17개 도시에서 오디션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케이블채널 엠넷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소녀시대와 레드벨벳의 SM엔터테인먼트도 신인 걸그룹 데뷔를 준비한다. 데뷔 시기와 멤버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4년 레드벨벳 이후 6년 만의 신인이라는 점만으로도 팬들의 호기심을 얻고 있다.

이들 말고도 몬스타엑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최근 엑스원 멤버 강민희와 송형준을 포함한 9인조 그룹을 상반기 선보인다. 영향력을 갖춘 대형 기획사들의 잇단 신인그룹 데뷔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정연 기자

"우리가 신천지?"...지라시에 빨난 스타들

유재석 소속사 등 강력 대응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연예인과 관련한 각종 루머와 비난 등 심각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자 톱스타급을 포함한 50여명의 연예인도 교인이라는 일명 '지라시'(사실정보지)가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다. 연예인

들은 "허위"라며 강력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소속 연예인 유재석과 정형돈 등이 거론되면서 FNC엔터테인먼트는 4일 "특정 종교와 전혀 무관하며 해당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지금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루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비방 게시글과 관련해 어떤 합의나 선처 없이 법적 절차를 토대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현과 한효

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언급된 연예인들 역시 같은 입장을 냈다.

코로나19 관련 루머는 앞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을 다녀온 가수 청하의 스태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밀라노를 다녀온 송해, 한예슬 등 일부 연예인들도 확진자라는 내용이 퍼져 나갔다. 이들은 이미 스포츠동아를 통해 "(확진자와) 동선이 다르고 귀국 후 발열 등 증상이 없다"며 "현재 건강에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연예인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과 시선의 피해도 크다. 국가적 재난 재해마다

연예인들이 먼저 나서 선행을 펼치는 일은 더 없이 반갑지만, 일부 누리꾼은 그 금액을 비교하거나 기부에 참여하지 않은 연예인의 개인 SNS를 찾아가 악플 세례를 퍼붓는다. 최근 연기자 이시연은 100만원을 기부한 뒤 비난을 받았다. 현빈도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를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번역해 응원의 메시지를 올렸다. 봉변을 당했다. "기부금이나 내라"는 식이다. 그가 이미 2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은 사그라졌다. 이정연 기자 anjjoy@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들의 건강학

얼굴서 발생하는 '삼차신경통'...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

삼차신경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면부의 통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통증들과는 다르게 식사나 양치, 세수가 불가능한 통증이다. 순간적으로 번개가 치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얼굴 부위에 발생한다.

삼차신경통은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비수술적인 치료와 침습적인 치료(신경차단술, 뇌수술 등)가 필요한 경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치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차신경통과 혼동하기 쉬

운 비전향안면신경통 환자에게 침습적인 치료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치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삼차신경통은 영상 사진이나 혈액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질환이 아니다. 환자가 겪고 있는 통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를 확인해 의사가 환자와의 문진을 통해 최종적으로 삼차신경통 여부를 진단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질환

과 관련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선택해야 정확한 진단 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삼차신경통 치료법은 크게 약물치료, 경피적신경차단술, 뇌수술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약물치료로는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이 삼차신경통 1차 처방약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약물들은 간 기능 저하, 조절세포 억제, 어지러움, 심한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처방이 필수적이다. 경피적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일으키는 삼차신경을 알코올, 고주파열 응고술 등을 통해 차단하는 방법으로 시술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고령의 환자에게도 시술이 가능한 것

이 장점이다. 뇌수술의 경우 앞선 치료들이 효과가 없을 때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23년간 중재적치료로 만성통증환자들을 치료해 오고 있는데 삼차신경통 치료는 1차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게 되지만, 약물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알코올을 이용한 삼차신경차단술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고령환자에도 국소 마취 하에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 즉시 통증이 해소돼 환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한경림** 기천마취통증의학과 원장

